육체 아버지, 복음 아버지, 천국 아버지

(고린도전서 4:14~21)

14.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7.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8.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19.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21.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늘 말씀 중심으로 <육체 아버지, 복음 아버지, 천국 아버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육체 아버지, 복음 아버지, 천국 아버지"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파에 관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21절의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세 아버지를 관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합니다. 이 육체를 제공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육체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준 아버지가 계시며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세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아버지는 모두 다 자녀인 나를 향하여 바람을 갖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에서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모든 아버지들이 자기 피를 받아 세상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이러한 바람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 아버지도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육체 아버지의 바람과는 정반대입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에 대해 죽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을 탈출하여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아버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완전히 다른 세계인 천국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육체 아버지는 자녀의 마음이 육체에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욕구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자녀가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 아버지는 이와는 반대입니다. 자녀의 마음이 육체와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유일한 있음으로 존재감을 느끼고 유일한 좋음으로 욕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 아버지가 제시하는 천국이란 완전히 새로운 있음과 새로운 좋음이 기다리고 있는 신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녀의 마음을 새로운 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복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입장이 바로 복음 아버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일깨워주면서 아버지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말과 일을 하겠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 번째로 천국 아버지가 계십니다. 천국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바람을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가지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세상 삶의 현장에서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이 천국 아버지와 함께 호흡을 맞추어 살기를 바라십니다. 천국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바람은 자녀의 마음이 천국으로 올라가 아버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육체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와 호흡을 맞추어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국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람을 가지시고 육체 아버지를 동원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아버지를 동원해서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을 떠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육체 아버지, 복음 아버지, 천국 아버지라는 세 아버지가 계십니다. 천국 아버지께서는 육체 아버지와 복음 아버지를 동원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육체 아버지의 바람이 있고, 복음 아버지의 바람이 있고, 천국 아버지의 바람이 있습니다. 천국 아버지께서는 바라시는 일을 위하여 육체 아버지를 동원하시고 복음 아버지를 동원하십니다. 이렇게 내용은 다르지만 아버지는 자녀를 향한 바람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점점 더 천국 아버지와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육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나도 원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아버지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복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천국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됩니다. 나의 바람과 소원이 육체 아버지로부터 복음 아버지를 거쳐 천국 아버지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한편 세 아버지에게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아버지는 모두 우리에게 몸을 제공하십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육체 아버지가 제공하시는 몸은 알기 쉽지만, 복음 아버지와 천국 아버지가 무슨 몸을 제공하신다는 것인지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육체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물학적인 몸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 또한 근본적인 면에서는 조물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체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도록 이용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육체가 꼭 필요하기에 이것을 제공하는 육체 아버지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체 아버지를 통해서 얻게 된 몸에 마음이 달라붙어 있으면 문제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육체 자체가 비극의 씨는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입니다. 이 원죄가 우리의 인격 속에 작용하면서 마음이 육체에 달라붙게 함으로써 빗나감의 죄는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감으로 다른 모든 것도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복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천국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지 못한 사람은 평생 육체 아버지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빚나간 인생을 살게 됩니다. 빚나간 인생에서 자기 인생은 없습니다. 배우자를 만나도 빚나간 상태이고, 자녀를 낳아도 빚나간 상태에서 관계하게 됩니다. 직장생활도 빚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육체 아버지만으로 평생을 산다는 것은 곧 지옥행 사형수로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권자이시고 조물주이신 천국 아버지의 은총 안에서 복음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아버지도 몸을 제공합니다. 나의 인격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육체가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있음과 새로운 좋음이 기다리는 천국에 인격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몸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아버지의 바람은 자녀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제공하는 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동안 육체와 유착된 상태에서 세상만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복음 아버지의 바람이란 마음이 육체와 연합된 상태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마음이 육체와 분리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복음 아버지는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복음 아버지가 등장하고 개입함으로써 육체의 몸에 달라붙어 있던 마음은 예수님의 몸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듯이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하늘에 태어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하늘에 나의 존재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는 곧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있다고 느끼며 존재감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좋다고 느끼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서 돈 문제가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건강문제가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겨도 마음은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이것이 복음 아버지의 바람대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탈출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 하늘에 올라가 하늘에 태어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복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제공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체 아버지로부터 받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붙어야 하는 몸은 육체 아버지가 제공한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우리의 마음도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음이 육체에 달라붙어 있을 때는 몸이 미국에 가면 마음도 미국으로 따라가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그 증거로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좋음을 욕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이러한 상태로 이끌고자 하는 사람이 복음 아버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아버지가 제공하시는 몸이란 무엇일까요? 복음 아버지의 역할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예수님의 몸에 마음이 달라붙게 되고 오직 천국을 현실로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마음이 천국을 현실로 느끼며 이 땅의 삶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며 초대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한 죽음 이후에 천국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4차원 천국에 맞는 몸을 제공해주십니다. 그 몸은 세상에서 육체 아버지가 제공해준 늙거나 쪼그라들거나 부패하는 몸이 아니라 4차원 천국에 맞는 영원하고 새로운 신령한 몸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제공받을 때 비로소 삼위일체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독자적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에 하나 되어 계신 하나님의 빛이 바깥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를 통하여 발산될 것입니다. 천국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조금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 아버지는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바람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몸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본문 17~18절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갈 것을 예고하며 교만한 자들의 말을 경계하고 능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앞서 살펴본 세 아버지의 관계에서 살펴보자면 세 아버지의 협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 아버지를 통해서 육체의 몸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아버지를 통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제공받았습니다. 마음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을 때 세상을 떠나 천국에 태어나게 됩니다. 천국에 태어나면 천국에 있는 것의 존재감을 느끼고 좋음을 욕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천국이 현실인 상태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은 바로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유일한 있음과 유일한 좋음 되시는 천국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아버지의 역할과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복음 아버지를 통해서 얻게 된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 마음은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간 마음이 천국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몸이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누구를 상대하든지 마음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먼저 느끼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람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육체 아버지를 통해서 얻게 된 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의 복사판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성령께서 육체를 움직이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경계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성향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 사건을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 아버지로서 십자가를 전할 때에는 말이 아닌 사건이기를 바랐습니다. 십자가를 묘사하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십자가를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말의 지혜가 중시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싸움에 십자가가 말려들어 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각 개인이 뛰어들어야 할 사건으로써의 십자가를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에 뛰어들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의 있음과 좋음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십자가 사건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어느덧 십자가를 사건이 아닌 말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천국도 십자가도 말로 받아들이게 되자 분쟁과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아볼로가 십자가에 대한 말로 유대인들을 반박하고 이기는 것을 보고 대단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말의 세계로 복음의 진리를 끌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과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과 예수님도 단어로써 이야기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들이 복음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다면 분쟁과

분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렇게 살 때 분쟁과 분파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상의 있음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좋음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쁘다면 세상의 모든 변수를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가까이 있는 첫 번째 대상으로 여겨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또 자기 기준을 넘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에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으로 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말만 무성하고 이러한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사건이 아닌 말로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 16절을 보면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얼핏 부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치 바울파에 속하라는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파는 바울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바울이라는 사람까지도 올라서기 위한 토대로 삼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파란 곧 바울이라는 이름을 딛고 올라선 사람들의 파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있었던 때를 떠올려봅니다. 모든 교인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칭찬했습니다. 또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었던 분들은 그 인연을 자랑하였습니다. 목사님과 식사를 했다,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심방을 오셨다, 목사님이 자녀의 주례를 서셨다, 목사님이 장례예배를 해주셨다는 식으로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자랑하는 한경직 목사님을 본받고자 한 교인은 없었습니다. 딱 한 분 기억에 남는 분이 최창근 장로님입니다. 이분을 제외하고는 제 경험에서 한경직 목사님을 본받으려

하는 교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한경직 목사님을 자랑하지만 누구도 한경직 목사님을 본받으려 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경직 목사님 위에 서서 높아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과 아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아버지로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 아버지가 육체 아버지와의 다른 점입니다. 앞서 우리는 육체 아버지와 복음 아버지와 천국 아버지의 공통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육체 아버지는 자녀가 자기와는 다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도둑질을 하더라도 자녀는 도둑질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행여 이 세상에서 높아졌거나 많이 가진 것을 본받으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바른 본받음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함께 지옥으로 가자고 자녀를 인도하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 아버지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자녀들이 자신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아버지는 육체로 만나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계신 아버지를 있음과 좋음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인 천국 현실로 들어가도록 밀어붙이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복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나 황당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10~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내용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놓고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니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혐오하라는 편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원형경기장에 죄수를 맹수의 밥으로 던져놓고 관객들의 조롱을 당하는 처지에서 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본받으라니 참으로 황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복음 아버지들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것이 예수님의 몸과 연합해야 될 자녀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육체의 몸 대신에 예수님의 몸에 달라붙을 경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이상을 원하지 않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이 교리적이거나 율법적인 말로 들리지 않도록 생활적인 용어로

번역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란 바로 이렇게 세상의 끄트머리 자리에 눌러앉아서 인생을 사는 것임을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낸 것입니다.

복음 아버지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제공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마음이 세상을 탈출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겠다거나 높아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천국의 현실감을 느끼는 새로운 태어남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복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육체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잘라진 마음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으면 새로운 세계인 천국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설령 이 세상에서 왕이 되더라도 마음은 절대 왕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마음이 그 자리에 붙어서 위에 올라서려 하지 말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 세상의 끄트머리인 자리, 원형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 조롱받고 구경거리인 자리를 십자가 붙잡고 고수할 때에 마음이 세상에서 높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사회 안에서 몸이 어떤 위치에 서든지 마음은 육체가 처한 상황과 떨어져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거지일지라도 몸이 건강한 것으로 마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처지일지라도 그것으로도 마음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계좌에 돈이 좀 있다고 해서 마음이 그 위에 올라서면 안 됩니다. 육체가 머물 집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그 위에 올라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번역하자면 원형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어 죽는 사람의 처지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복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흐름 속에 묻혀버리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서만 열립니다. 그

렇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말한 후에 복음 아버지로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체 아버지, 복음 아버지, 천국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세 아버지와의 관계를 여러분 스스로 정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 아버지가 계십니다. 천국 아버지는 이미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아버지와 관계할 수 있도록 돕는 복음 아버지가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어떤 분이 계셨고 또한 어떤 분이 계십니까? 그 세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정립하면서 세 아버지를 통해 생겨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체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무려 세 분의 아버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세 분 아버지와의 관계를 천국 아버지의 뜻을 따라 헤아리고 올바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체험될 수 있는 생을 살다가 천국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